

충남의 세계화를 위한 세미나

## 충남의 세계화 전략

2002. 11

- 일시 : 2002년 11월 15일(금) 14: 00 ~ 16: 20
- 장소 :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 주최 : 충청남도
- 주관 : 충남발전연구원

## 행 사 일 정

- ◆ 등록 및 안내 13:00 ~ 14:00
- ◆ 개 회 식 14:00 ~ 14:10
  - 국 민 의 례
  - 개 회 사 김대길 충남발전연구원장(직)
  - 환 영 사 심대평 충청남도 도지사
- ◆ 좌 장 인 사 안성호(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4:10 ~ 14:20
- ◆ 주 제 발 표
  - 제1주제 : 지방의 세계화 전략 14:20 ~ 14:50  
박종찬(고려대학교 국제정보경영학부 교수)
  - 제2주제 : 충청도정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평가와 과제 14:50 ~ 15:20  
임정빈(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경득(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휴 식 15:20 ~ 15:30
- ◆ 종 합 토 론 15:30 ~ 16:20
  - 사 회 자 : 안성호(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 론 자 : 고정식(배재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김정연(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윤성국(대전매일 사회부장)  
한찬희(충남도청 경제통상과장)  
한창숙(충청남도 새마을부녀회장)
- ◆ 폐 회

# 목 차

## I. 개회식

- 개 회 사 ..... i
- 환 영 사 ..... ii

## III. 주제발표 .....3

- 제1주제 : 지방의 세계화 전략 .....3  
박종찬 (고려대학교 국제정보경영학부 교수)
- 제2주제 : 충남 도정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평가와 과제 .....29  
임정빈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경득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개 회 사

쌀쌀한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한반도의 중심축(中心軸)으로 자리잡아 가는 등 바야흐로 「충남의 중흥기(中興期)」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들도 충남지역의 비전이나 개발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보도하고 있는 등 예전보다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은 「세계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995년 민선자치제가 출범할 때부터 본격적인 세계화를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인 「충남의 세계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모두 합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의 토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좌장을 맡아주실 안성호 교수님, 그리고 주제발표를 해주실 박종찬, 임정빈교수님과 다섯 분의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중요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충청남도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11월 15일

충남발전연구원장(직) 김 대 길

## 환 영 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충남의 세계화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도정의 세계화 전략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상호의존적인 조화와 노력의 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민선자치 출범 3기를 맞는 등 세계화·지방화의 추세는 날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모든 분야에서 거스릴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우리 주변의 생활을 살펴보면 농산품이나 공산품이나 할 것 없이 오로지 한국제품인 것은 찾기 힘듭니다. 청소년의 문화, 환경오염 등도 한국이라는 국가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상호 영향 아래서 이루어지며 통신의 발달과 교류의 증진은 세계화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이 이로운 것만 아니라는 것을 적절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화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한국도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계화는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소용돌이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세계경쟁에서 낙오자가 되어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사회구성원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삶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라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민 없는 세계화, 주민의 참여 없는 세계화, 주민의 삶의 향상 없는 세계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계화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통해 우리의 현상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아보고, 토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주 시기 적절하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한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선 행정 현장에서 세계화 업무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 11월 15일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1주제

## 지방의 세계화 전략

박 종 찬

(고려대학교 국제정보경영학부 교수)

# 지방의 세계화 전략

박 종 찬

(고려대학교 국제정보경영학부 교수)

## I. 서론

- 교통,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거리와 시간의 축소로 시장의 범위 확대에 따른 교류와 협력의 증대
- 국제적, 국내적인 정치행정의 특징은 경제력의 중요성 증대와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地方의 國際化'추세
- 세계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이 국제화의 주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소위 『地方의 國際化時代』,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地方外交의 時代』 도래
- '地方의 國際化時代'에 있어서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 궁극적으로는 지방경제의 경쟁력에 달려 있음
- 이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세계 각 국의 지방정부와 국제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교류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방의 세계화 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국제협력 지원활동의 한계인식에서 출발
  -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 된 국제협력 관계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 지방 국제교류의 주요한 형태는 자매결연
  - 지방의 세계화 궁극적 목표는 세계화를 통한 주민의 경제적,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본 연구는 충남의 세계화 현황분석 특히, 경제통상활동, 자매결연 그리고 지방공무원 역량증대를 위한 해외연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 II. 충청남도의 세계화 추진현황

### 1. 충청남도의 국제통상 지원활동

#### 1)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 (1) 뉴욕무역관

##### 가. 뉴욕무역관 수출지원활동

<표 1> 뉴욕무역관 수출지원활동

(단위: 개소, 천불, 회)

연도별	수출상담		수출계약		대행박람회참가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합 계	265	57,023	80	10,636	18
1997	141	7,270	16	740	4
1998	44	7,700	11	1,150	3
1999	37	12,957	22	2,342	7
2000	19	8,560	12	2,039	1
2001	24	20,716	19	4,365	3

- 뉴욕무역관의 수출상담대비 수출계약 성사율 (수출계약건수/수출상담건수)은 5년 평균 30% 이고, 1997(0.11), 1998(0.25), 1999(0.59), 2000(0.63), 그리고 2001(0.79)로 매년 수출상담대비 수출을 계약시키는 성사율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가능성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상담계약을 성사시키는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있다.
- 또한 건당 수출계약 평균액수 (수출계약금액/수출계약건수)는 5년 평균 133천불이고 1997(46천불), 1998(105천불), 1999(106천불), 2000(170천불), 그리고 2001(230천불) 등으로 매년 계약 건당 수출액수가 증가하는 고무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 나. 뉴욕무역관 시장정보, 자료 및 관광객 유치 실적

&lt;표 2&gt; 뉴욕무역관 시장정보, 자료 및 관광객 유치 실적

(단위: 건, 명)

연도별	정보제공	외국어지원	무역실무지원	관광객유치
합 계	1,559	431	199	365
년평균	312	86	40	73
1997	118	190	46	48
1998	105	127	25	65
1999	243	77	125	165
2000	546	33	3	34
2001	547	4	-	53

- 뉴욕무역관의 1997년 이후 2001년까지 5년 동안 정보제공, 외국어지원, 무역실무지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 면에서의 실적을 분석해보면, 정보제공은 5년 동안 연평균 3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외국어지원은 5년 평균 86건이고 감소추세, 무역실무지원은 5년 간 연평균 40건이지만 감소하는 추세이고 마지막으로 관광객유치는 5년 간 연평균 73건으로 증감이 해에 따라 심한 편이다.

## (2) 구마모토사무소

## 가. 구마모토사무소 수출지원활동

&lt;표 3&gt; 구마모토사무소 수출지원활동

(단위: 개소, 천불, 회)

연도별	수출상담		수출계약		대행박람회참가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합 계	3	2,890	16	2,017	7
1999	2	560	2	560	4
2000	1	1,100	2	650	1
2001	0	1,230	12	807	2

- 구마모토사무소의 수출계약 건당 평균수출계약액은 126천불이고 1999(280천불), 2000(325천불) 그리고 2001(67천불)로 뉴욕사무소에 비해 연평균 수

## 6 • 충남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

출계약건수는 적지만 1999년과 2000년에는 건당 수출금액이 뉴욕사무소보다 더 컸다. 대항박람회 참가건수는 3년 평균 2.3회이었다.

### 나. 구마모토사무소 시장정보, 자료 및 관광객 유치실적

<표 4> 구마모토사무소 시장정보, 자료 및 관광객 유치 실적

(단위: 건, 명)

연도별	정보제공	외국어지원	무역실무지원	관광객유치
합 계	332	203	48	2,184
1999	9	55	11	412
2000	166	63	37	765
2001	157	85	-	1,007

- 구마모토사무소는 1999, 2000, 2001 3년 동안 연평균 111건의 정보제공, 68건의 외국어지원, 16건의 무역실무지원 그리고 728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을 보였다. 정보제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어지원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마모토사무소의 가장 큰 특색은 관광객유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다.

## (3) 상해 상품전시관

### 가. 상해 상품전시관 수출지원활동

<표 5> 상해상품전관 수출지원활동

(단위: 개소, 천불, 회)

연도별	수출상담		수출계약		대항박람회참가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합 계	31	8,162	21	3,770	10
2000	13	3,179	9	1,006	6
2001	18	4,983	12	2,764	4

- 상해상품전시관의 건당 수출계약금액은 연평균 180천불로 2000(112천불) 그리고 2001(230천불)로 급신장 하였다. 그리고 연평균 230건의 정보제공,

109건의 외국어지원 그리고 130건의 무역실무지원을 하는 등 인상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

나. 상해상품전시관 시장정보, 자료제공 활동

<표 6> 상해상품전시관 시장정보, 자료제공 활동

(단위: 건)

연도별	정보제공	외국어지원	무역실무지원
합 계	460	218	260
2000	183	95	134
2001	277	123	126

- 상해상품전시관은 연평균 230건의 정보제공, 109건의 외국어지원 그리고 130건의 무역실무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

(4) 충청남도 뉴욕, 구마모토, 상해 해외사무소 실적비교

<표 7> 충청남도 뉴욕, 구마모토, 상해 해외사무소 실적비교

구 분	뉴욕사무소	구마모토사무소	상해상품전시관
수출계약건수 (건/년)	13	5.3	7
수출계약액수 (천불/년)	133	126	180
정보제공건수 (건/년)	312	111	230
외국어지원 (건/년)	86	68	109
무역실무지원 (건/년)	40	16	130
대행박람회참가 (회/년)	3.6	2.3	5
관광객유치 (명/년)	73	728	-

자료: 2002 도정백서

- 뉴욕무역관, 구마모토사무소 그리고 상해상품전시관의 실적을 상호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평균 수출계약건수는 13, 5.3, 7건의

로 뉴욕무역관, 상해전시관 그리고 구마모토사무소 순이었다. 둘째, 건당 수출계약액 즉, 수출계약의 건당 규모 면에서는 상해전시관(180천불), 뉴욕무역관(132천불) 그리고 구마모토사무소(126천불) 순이었다. 셋째, 년평균 정보제공 면에서 보면 뉴욕무역관(312건), 상해전시관(230건) 그리고 구마모토사무소(111건) 순으로 경제통상과 관계된 정보제공 면에서는 구마모토사무소에 비해 뉴욕무역관과 상해전시관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넷째, 외국어 지원 면에서는 상해전시관(109건), 뉴욕무역관(86건) 그리고 구마모토사무소(68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무역실무지원에서는 상해전시관(130건), 뉴욕무역관(40건) 그리고 구마모토사무소(16건) 순으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관광객유치 면에서는 구마모토사무소는 년평균(728명)의 실적 그리고 뉴욕무역관(73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상해전시관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행박람회 참가 면에서는 상해전시관 5회, 뉴욕무역관 3.6회 그리고 구마모토사무소 2.3회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 따라서 위의 충청남도 3개 해외사무소의 실적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구마모토사무소는 경제통상을 지원하는 활동 면에서는 상해상품전시관과 뉴욕무역관에 비교해서는 양적인 활동건수와 질적인 건당 계약액 등에서 뒤지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관광객 유치 면에서는 다른 두 사무소에 비해 탁월한 업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구마모토사무소가 갖고 있는 해외사무소의 특색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구마모토사무소는 1980년대 초에 충청남도과 구마모토현이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지속적인 민간차원의 교류가 진행되어 왔다. 1998년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주로 통상보다는 양 자치단체 사이의 문화교류와 행정교류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교류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반면에 뉴욕무역관과 상해전시관은 일차적 목적이 경제통상의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상해전시관의 경우는 도내 18개의 기업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것으로 민간기업이 주축이 됨으로써 기업의 본래 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동기가 적극적으로 유발됨으로써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충청남도 주도의 뉴욕무역관에 비해 건당

평균수출금액, 외국어지원, 무역실무지원 그리고 대항무역박람회 참가 등 여러 면에서 뉴욕무역관을 능가하는 업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상해전시관이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지역적 특성상 우리 기업제품이 팔릴 수 있는 시장이 미국보다는 중국시장이 더 확률이 높은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 2)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1992년부터 총 18회 165개 업체가 참여하여 170,174 천달러 상담실적을 거둠. 2001년에는 중남미지역 시장개척단 등 3개 사업에 20개 업체가 참여하여 16,536 천 달러 상담성과를 거둠
-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보다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그리고 첨단제품 보다는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한 시장개척단 파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10. 충남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

<표 8>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성과

	연참가 업체수	파견대상국	성 과 (천달러)		
			상담액	계약	실제수 출
소계	165	47(32)개국	170,174	38,025	10,052
'92	7	대만, 홍콩, 태국	4,059	810	0
	7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4,103	1,500	0
'93	10	프랑스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6,669	3,017	0
	9	미국 캐나다	9,420	4,365	0
'94	12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6,243	2,667	11
	12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8,771	538	42
	10	일본 홍콩(1도1품목)	4,023	254	158
'95	12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6,764	6,960	7,012
	12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독일	15,964	2,715	50
'96	11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11,593	1,673	1,232
	7	미국 파나마 헤루	4,757	968	122
'97	12	브라질 캐나다 미국	15,708	395	487
	12	말련 파키스탄 중국	39,127	3,284	100
	6	멕시코 칠레 브라질	2,426	1,546	550
'98	6	크로아티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4,011	645	45
'01	8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10,785	4,249	243
	7	중국(청도) 인도(뭄바이)	780	30	0
	5	말레이시아 미얀마 아랍에미레이트	4,971	2,409	0

### 3) 국제전시, 해외박람회에 참가

- 1995년부터 총 126개의 도내 업체가 참여하여 159,025 천 달러 상담성과 얻음. 2001년에는 5개 사업 20개 업체가 참여하여 25,486 천 달러 상담실적을 거둠
- 박람회의 성격과 잘 부합하는 중소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박람회에서 실질적인 수출상담과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lt;표 9&gt; 국제전시, 해외박람회 참가 성과

	참가업 체수	박람회 장소	상담액	계약	실제수출
소계	126	19(0개국)	159,025	29,437	11,231
'95	10	러시아(아므르국제박람회)	1,797	706	100
'96	7	러시아(아므르국제박람회)	2,078	2,652	0
	8	독일(뮌헨전자부품박람회)	5,670	769	725
'97	5	러시아(아므르국제박람회)	4,080	2,650	10
	7	일본(동경한국부품산업전)	3,380	1,410	0
'98	5	일본(오사카한국산업전)	913	786	50
	11	중국(북경,석가장)	6,635	242	242
'99	9	중국(북경종합박람회)	22,916	726	496
	5	영국(버밍햄소비재박람회)	1,345	402	160
	5	중국(홍콩전자부품박람회)	29,900	2,648	1,990
	2	일본(동경한국부품산업전)	3,000	2,000	200
	3	미국(라스베가스자동차부품)	5,900	2,300	200
'00	6	중국(상해 플라스틱·고무 전문박람회)	28,447	3,864	4,439
	6	중국(광저우중학박람회)	1,655	25	168
	3	미국(시카고하드웨어전문박람회)	5,680	3,540	855
	5	러시아(아무르국제박람회)	2,060	-	64
	1	일본(일본 동경 건축 신기술전)	-	-	0
	3	미국(라스베가스자동차부품박람회)	233	32	75
	7	독일(뮌헨전자부품박람회)	7,850	877	404
'01	4	미국(디트로이트자동차부품박람회)	7,200	200	16
	3	일본(동경 문구·사무용품박람회)	1,221	20	920
	3	미국(시카고하드웨어박람회)	10,035	2,885	59
	4	독일(프랑크푸르트소비재박람회)	4,442	574	58
	4	중국(홍콩전자부품박람회)	2,591	129	0

#### 4) 수출유망기업 발굴

- 국제경쟁력을 갖춘 내수 위주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무역실무교육, 수출보험료 지원 등 기초 단계부터 수출까지 종합 지원하여 2001년도에 16개 업체를 발굴하여 총 4,380천 달러 수출 성과 달성



## 5) 해외투자 유치활동

### (1)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

해외투자유치는 고용창출, 무역수지개선, 생산성향상, 첨단기술 이전, 경쟁 및 구조조정 촉진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외채의 추가부담 없는 안정적인 외국자본 도입 수단으로 국내외의 모든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충청남도도 좋은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펴고 있음.

### (2) 충남의 투자 여건

#### 가. 지리 및 입지여건

- 충남은 동북아시아의 관문이자 국내 시장의 중심지로서 경제를 위한 최적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지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으며, 서해안을 따라 선박을 이용한 중국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한 국제 직항로 항공편을 이용함으로써 제조업과 첨단사업의 본거지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위치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 나. 최적의 투자여건을 갖춘 새로운 사업입지

-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중심 축으로 하는 공업벨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수는 총 89개소로 이중 73개소는 완공되어 입주가 끝난 상태이고, 나머지 16개소는 조성·추진 중에 있다.
- 현재 도내에는 5,000여개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전기·전자·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 백석동에 위치한 외국인기업 전용공단내 사업용지 총 714천㎡이 분양 또는 임대 완료되어 38개(가동27개) 외국기업이 입주해 있다.

#### 다. 물류단지 등 기타여건

- 연기지역에 21만평 규모의 컨테이너기지 및 복합터미널을 비롯해 천안 지역에 14만평 규모의 물류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며, 30개 대학에서 매년 3만 명이상의 우수인재가 배출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한 관계로 우수 노동력확보가 용이하다.
- 공단가동에 필수적인 공업용수는 대청댐 1일 538천톤, 아산 광역상수도 570톤, 보령댐·광역상수도에서 1일 285천톤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수급측면에서도 도시가스(산업용)는 m<sup>3</sup>당 396.39원 정도로 他시도에 비해 저렴하며 북부권을 중심으로 250km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력은 서천·보령·태안 등 3곳의 화력발전소가 있어 연간 3,875만 MWH 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당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

#### 라. 외국인 투자에 따른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최대 50년까지 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15년간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입지·고용·교육훈련·고용보조금·시설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과 외국인학교·외국인전용거주단지의 조성 등 생활편익을 위한 지원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외국인기업의 투자신청시 인·허가와 관련한 수속 및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One-stop 서비스제를 운영하여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3) 2001년은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미국의 테러사태(9.11)로 인한 투자심리위축과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은 2001년 목표대비 145%, 2000년 실적대비 91% 증가율의 성과를 거두었음

#### 14• 충남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

##### (4) 충청남도 연도별 투자유치 실적

<표10> 충청남도 연도별 투자유치 실적

(단위: 백만불)

구분	누계	97까지	98	99	2000	2001
건수	268	103	28	52	47	38
금액	2,530	799	98	885	257	491
금액/건	9.44	7.76	3.5	17.0	5.47	12.9

- 건별 평균 투자액수 및 연도별 추세에 있어서는 감소와 증가가 교차되는 등 별다른 특색을 보이지 않는다.

##### (5) 충청남도 해외 국가별 투자유치 현황

<표11> 충청남도 해외 국가별 투자유치 현황

(단위: 건, 천달러)

국가별	합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	기타
건수	38	11	6	5	2	2	1	11
금액	491,062	53,280	24,530	818	73,870	2,550	205,000	131,014
금액/건	12,923	4,844	4,088	164	36,890	1,275	205,000	11,910

- 건별 평균 투자액수는 12,923천 달러이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다.

## 2.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 1) 자매결연의 기원

- 국제도시간 교류는 제1차 세계대전후인 1920년대 유럽도시간에 이루어지기 시작
- 전쟁 후 국제도시간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선린에 기여
- 그 후 지방분권화의 진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도시, 인권문제 등 지구규모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대두
- 국경의 개념이 퇴색되는 세계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세계 각 지역은 국제도시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정보교환, 무역, 투자유치 등 상호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증진

### 2) 국내 자매결연 기원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 국제화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도시간 교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한편, 이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결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매결연 추진
- 1961년 6월 경남 진주시가 미국 오레곤주의 유진(Eugene)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시초
- 2002년 4월 현재, 국내 자치단체가 해외 406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친선, 경제통상등의 목적으로 국제도시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3) 자매결연의 필요성

- 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대표적인 형태는 양 도시가 어떤 형태의 교류협력관계를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자매결연 체결이 대표적 형태
-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국가차원의 일괄적인 정책시달은 다양한 지역특성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16• 충남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

- 이에 따라 각 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매교류를 통하여 정보교환, 우호친선, 경제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단체간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의 선린평화에 기여하는 한편, 각기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를 이루어온 양 자치단체가 상호간의 지역문화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국제화의식을 함양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민의 결속을 다지는 결과로 이어짐
- 국제경쟁력 강화 : 무한경쟁시대에 있어 자치단체간의 자매교류는 행정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지역특성이 유사한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정보교환은 사전에 정책집행의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수립의 노하우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우수시책을 도입하고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서 행정비용의 절감과 효율성 있는 행정시책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함
- 경제교류 면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지역과의 경제통상교류 및 투자유치는 ... ..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지방자치제도가 오래 전에 뿌리를 내린 선진도시들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개선에 대하여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선진 ... .. 양한 형태의 사업과 기법을 적극 수용하고 행정시책에 응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됨

### 4)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의 형태

#### (1) 행정교류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자매도시간 행정교류는 대략 분야별 공무원연수, 공무원 교환근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분야별 공무원 연수는 도시문제, 환경문제, 항만관리, 방재 대책 등 공통의 관심분야를 주제로 하여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일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연수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우수한 시책을 파악하게 하거나 사업의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 공무원 교환근무는 상대 자치단체에 대한 일상의 업무 및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실제로 양 자치단체의 교류업무의 창구로서 활용할 수도 있어 자치단체간에 원만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는 활력소가 되고 있음
- 일반행정연수는 양 자치단체 직원을 상호 파견,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상대 도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분야별 전문연수는 농업, 보건 등의 분야에 있어 상호 직원을 파견, 담당부서에서 연수시키는 것으로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2) 경제 · 통상교류

- 전 세계적으로 국경의 개념이 퇴색되면서 국제도시간 교류의 보편적인 목적이었던 양 지역간 우호친선의 증진 외에도 점차 실질적인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이것은 자매도시교류를 통하여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지역이 상호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도
- 양 지역이 서로 경제적 보완관계에 있을 경우, 즉 지역생산물이 서로 비교우위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시장개척단이나 무역박람회 개최, 시장구매단 파견 등 적극적인 통상경제활동을 통하여 상호무역을 증진하려는 경향이 강함
- 상대지역이 노동여건, 해외시장접근 가능성, 인센티브, 부존자원 등 제반 여건이 유리할 때는 상대도시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첩경이며 나아가 양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3) 문화교류

-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는 양 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상호신뢰와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민간단체간 상호교류 역시 주민에 의해 이루어 짐

## 18 • 충남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

- 그러므로 상호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교류는 교류상대 지역의 문화적도, 가치기준의 상이성을 서로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양 시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이러한 문화교류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상대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주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방편이며 삶의 질의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 문화교류의 형태는 전통예술단, 미술작품전, 사진전, 전통무용단 등 실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주민을 이러한 행사에 직접 참여시키기 쉬어 민간차원의 교류효과가 무척 크다고 봄

### (4) 청소년교류

-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간의 교류는 양 도시간 교류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음
-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은 서로 금방 친해질 수 있고 또 빠른 시간 내에 다른 환경에 적응할 수도 있어 홈스테이 등 상대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형태의 교류도 가능하여 상당한 교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교류형태에 있어서도 각종 스포츠교류, 미술작품 교화전시회, 합창단이나 공연단 상호교환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후의 서신교환 등을 통한 친선도모도 용이함
- 국적을 초월한 친근하고 꾸밈없는 마음의 교류는 서신의 왕래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시민교류의 장기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 5) 자매결연의 추진절차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짐
- 대상도시 선정 ▶ 친서 등의 형태로 상대도시의 교류의향을 타진 ▶ 양 도시간의 교류의사 확인 ▶ 실무적 차원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교류사업계획 작성 ▶ 일정기간 사전교류를 실시한 뒤 상호 자매결연 체결의사 확인 ▶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 협정서 작성 ▶ 행정자치부 승인 ▶ 양 자치단체 대표자의 공동서명을 거쳐 공식적인 자매결연 관계 성립

## 6) 자매결연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 결연의 적합성

-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규모, 지역여건의 유사성,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유사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책정보 등의 교환이나 공통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및 공동연구에 용이하게 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유리함
-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 가능성. 양 자치단체가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거나 서로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교역하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투자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양 도시의 번영을 촉진하기가 용이함
-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고려. 이러한 고려는 우호친선 증진, 세계평화예의 공헌 등 추상적이기 쉬운 교류성과를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이나 의회를 설득하여 보다 지속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함

### (2) 사전교류

- 사전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양 자치단체가 상호방문 등 교류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2년~3년의 사전교류를 갖는 것이 보통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1년~2년일 경우가 대부분
- 사전교류기간 동안 양 자치단체는 상호 지역여건이나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팸플릿 등 충분한 자료를 교환해서 향후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내에 있어 교류 주체가 될 민간단체를 물색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사전교류 단계부터 행정주체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주체를 참여시켜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협의하게 하는 것은 자매결연체결 이후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임



(3) 주민참가 유도

- 행정 면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 교류주체가 되어 이를 기반으로 각종 교류사업이 이루어지는 자매교류형태야 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류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양 자치단체간 교류사업 협의나 사전교류단계에서부터 주민, 학계, 사회단체를 참가시켜 자매결연체결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민간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교류아이디어를 이들에게 스스로 제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 왜냐하면 행정기관만의 행사성 자매교류는, 교류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으로부터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나 실질적인 협조를 제공받지 못해 교류형태가 단순화되고, 자매교류의 필요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납세자인 주민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함으로서, 결국 자매교류가 지속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 7)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국가별 자매결연 현황(2002.4 현재)

&lt;표 12&gt;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세계화 추진방향

국가명	외국자매도시수	단체구분		
		소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	406	406	123	283
중국	122	122	16	106
미국	75	75	23	52
일본	71	71	13	58
러시아	15	15	10	5
호주	10	10	4	6
대만	10	10	4	6
베트남	10	10	5	5
멕시코	10	10	6	4
인도네시아	7	7	5	2
캐나다	7	7	3	4
몽골	6	6	1	5
브리질	5	5	3	2
필리핀	4	4	1	3
프랑스	4	4	2	2
독일	4	4	-	4
뉴질랜드	3	3	1	2
네덜란드	3	3	1	2
이탈리아	3	3	2	1
남아프리카공화국	3	3	3	-
스페인	3	3	2	1
터어키	3	3	2	1
카자흐스탄	2	2	1	1
벨기에	2	2	-	2
영국	2	2	1	1
헝가리	2	2	2	-
폴란드	2	2	2	-
파라과이	2	2	1	1
칠레	2	2	1	1
이집트	2	2	2	-
아르헨티나	2	2	2	-

\* 1개 자매결연 국제도시(10)

- 광역시(4) : 스웨덴, 콜롬비아, 파나마, 이스라엘
- 기초단체(6) : 덴마크, 오스트리아, 키르기즈, 파푸아뉴기니, 루마니아, 인도

## 8) 충청남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현황

### (1) 국제교류 협력추진

-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구마모토현과의 행정의견 교환회 개최, 도지사 중국순방, 중국 허베이성 축하방문단의 제82회 전국체전 축하방문 등
- 미주지역과의 교류협력확대
  - 투자유치 및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홍보를 위한 도지사 미국방문,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와 자매결연 체결
- 남호주와의 자매결연 체결
- 유럽의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와의 교류확대

### (2) 충남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현황

<표 13> 충청남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현황

구분	자치단체명	체결일자
계	12	
자매결연(6개 단체): 상호공무원친선방문, 행정, 이벤트행사참여, 체육, 투자유치, 시장개척 등 경제교류	일본 구마모토현	1983.01.22
	중국 허베이성	1994.10.19
	러시아 아무르주	1995.06.15
	호주 남호주	1999.10.12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2001.05.28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2002.04.26
우호협력(6개단체): 상호공무원친선방문, 투자유치, 시장개척 등 경제교류	중국 산둥성	1995.10.31
	독일 바이에른주	1996.03.18
	미국 캘리포니아주	1997.03.20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	1997.03.25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2000.12.13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2002.04.16

### 3. 충청남도 공무원 해외연수

- 단기연수, 출장, 장기연수, 국외파견을 통해 선진외국의 행정제도 및 운영기법 습득

<표 14> 충청남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구분 (2001)	목적별			지역별			
총계 (단위: 명)	견학	회의참가	시장개척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219	161	22	36	60	50	98	11

- 충남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유학 등의 장기연수를 통한 인재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의 부재로 유능한 인재를 충남의 지방공무원으로 유인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기존 지방공무원의 재교육 기회가 없음으로써 현직 공무원의 사기가 침체되고 능력을 배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 III. 결론: 충남의 세계화 전략

#### 1. 해외사무소의 역할 재정립 및 민간부문 참여유도

- 앞 절의 분석을 토대로 충청남도의 해외 통상 지원활동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사무소의 기능에 따라 민간과 관주도로 양분화 시키는 것이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직접적인 통상활동을 필요로 하는 성격의 사무소는 상해전시관과 같이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킴으로써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동기에 의한 운영의 활성화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충청남도의 행정과 국제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갖는 구마모토사무소와 같은 해외사무소는 관이 주도하는 구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2. 시장개척단 파견대상국가 및 참여기업 선정의 효율성 제고

- 시장개척단의 파견 면에서는 시장개척단에 참가하는 기업과 시장개척단의 파견국가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파견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개척단 참가기업과 파견국가가 잘 연결될 경우와 잘 못 연결된 경우에 실적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 충남의 시장개척단 파견성과를 분석해 보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시장개척단 파견이 실질적인 수출성사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충남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틈새시장을 선진국 보다는 동남아시아 및 중동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찾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중국산 저가제품 등으로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의 제품이 진입하기 힘든 반면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시장은 외국의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런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시장개척단의 파견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제품의 경우에는 세계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 스스로 선진국 시장을 개척하고 진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도 충청남도의 중소기업 제품은 품질 면에서 세계최고의 제품이 경쟁하는 미국 및 유럽 등의 선진국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 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개발도상국 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3. 해외박람회 참가의 효율성제고

- 해외 박람회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참여기업의 선정 및 참여 박람회의 선정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 4. 姉妹結緣 擴大・多邊化 및 內實化

- 서유럽국가와의 자매결연 확대 필요 : 서유럽 선진국가 관광객에 충청남도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서유럽 문화 선진국의 관광행정 습득 필요.
-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자매결연 필요 :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의 우호협력 증진에 의한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충청남도의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의 선진국으로부터 배우는 것으로부터 개발도상국에게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새마을 운동, 기술습득 및 이전 정책 등)을 전수하는 주는 입장으로의 지방외교의 전환을 통해 향후 큰 잠재적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지방외교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충남은 선진국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고 보다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큼(일본은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많은 투자를 시작하고 있음)

## 5. 지방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중하위직 공무원 해외 연수 추진

- 地方公務員 海外研修 體系的 運營 : 충청남도 고위직 정책관리자의 리더쉽 함양 및 개혁모델 연수, 중하위직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 배양을 위한 장단기 해외 연수추진
-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기관이 많이 있고 생활비와 물가가 저렴해 파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감
- 중앙정부 차원의 공무원 해외유학생들이 방콕소재 아시아공과대학원을 아시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유학대상학교로 선호하고 있음

##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 한국 무역진흥공사(KOTRA)의 활동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충청남도 차원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활동 필요
-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사업,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해외시장 정보 지원활동 확대

## 7. 外國 地方公務員 招請研修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의 K2H Program, 한국 국제협력단(KOICA) 등과 협의하여 자매결연 외국 자치단체 공무원의 충청남도 국제교류업무 부서에 배속 연수
- 연수비(재단 50%, 자치단체 50%), 주거비(자치단체) 지원

## 8. 충청남도내 駐韓外國人 기업인 및 근로자 生活文化 向上을 위한 활동

- 도내거주 주한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모색
- 도내거주 주한외국인 삶의 질 제고방안 모색
- 도내거주 주한외국인 및 노동자의 한국 문화 및 민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통해 귀국 후에도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행사 및 교육기회 제공



## 충남 도정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평가와 과제

임 정 빈 · 권 경 득  
(대전대학교 교수 · 선문대학교 교수)

# 충남 도정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평가와 과제

임 정 빈 · 권 경 득  
(해전대학 행정학과 교수 · 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I. 서 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 등으로 요약되는 세계 환경의 변화는 인류의 생활양식(life style)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가간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 지구촌화(globalization)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inter-dependency)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 나라 국정운영의 기조로 정착된 세계화 정책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국제통상(교류)관련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국제교류와 국제통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충원(양성)하여,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화 수준은 1994년 44위에서, 1995년 40위로 상승하였으며, 1996년 43위, 1997년 45위, 1998년 46위로 하락하였으나 1999년에는 40위, 2000년 30위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IMD, 2000). 이는 한국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구촌화

(globalization)라는 국가간 경계가 없는(boundaryless)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세계화 전략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세계화 추진은 종래의 국가중심의 국제교류에서 벗어나 국가간 교류주체의 다원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도 세계와 곧바로 통하는 시대가 되어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김판석, 2000: 6; 안성호, 2001),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세계화의 의미는 국제적인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면서 궁극적으로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주민복지의 향상을 꾀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관련사업의 예산상 문제, 국제관련 민관협력사업 선정의 어려움, 국제관련 사업효과의 장기성(長期性)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계화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제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충청남도의 세계화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II.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한 일반적 논의

###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와 세계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turbulence)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인한 지방분권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사회 전(全) 분야에 거친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는 저비용·고효율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소비자)중심의 고성과(高成果) 중심의 정부를 지향하기 위하여 이른바 ‘기업가적 관리방식’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국가간 교역장벽 완화·철폐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경 없는 이른바 ‘무한경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 자본, 기술, 인력 및 상품의 이동이 보다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Internet)을 통한 지식·정보의 교환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세계는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거대한 정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김익만,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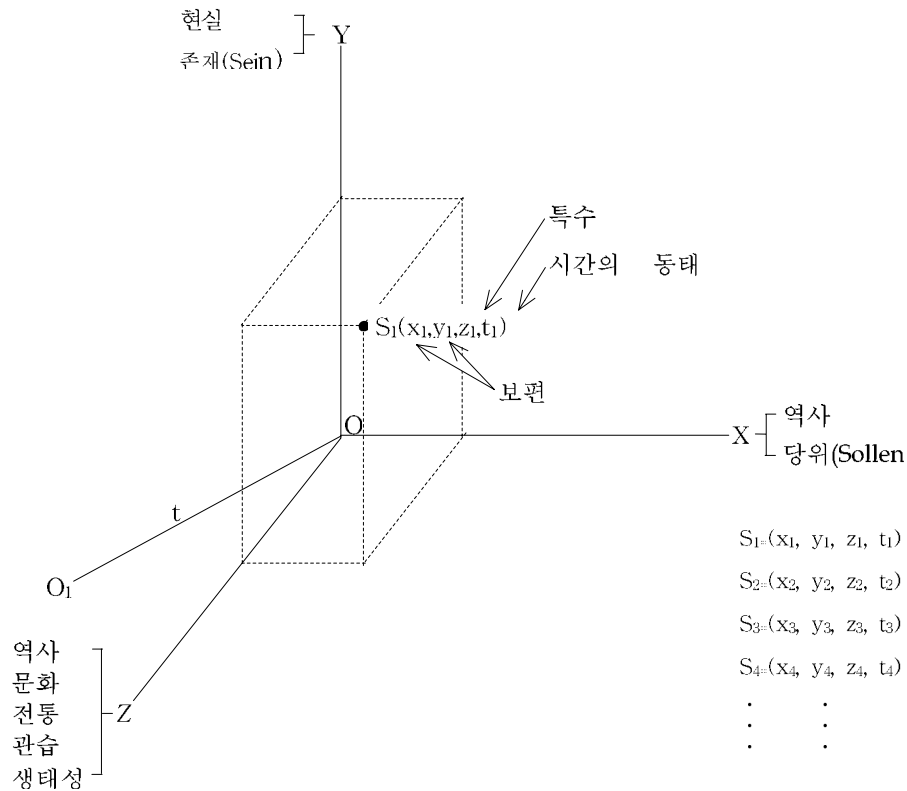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세계화(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등으로 요약된다. 세계화는 경제통상의 개방과 인간·자본·물품 교류의 활성화, 정보·통신의 발달 및 탈국가화 등으로 특징을 지워지며, 지방화는 정치·행정의 분권화, 시민참여의 증대, 행정의 민주화, 고객중심의 행정, 기업가적 경영방식의 도입, 주민의식의 다양화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과거에는 주로 중앙정부의 단일 외교 창구를 통하여 국제교류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 시민단체(NGOs) 등이 주체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외국의 상대기관과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현상을 일명 ‘세방화’(glocalization)로 표현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방화 현상은 지역적으로 확대되고(broadening),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심화되며(deepening),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연속성(continuing)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길병옥, 2002: 328).

## 2.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공간론적 인식

‘지구적 시각에서 사고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 세계화와 지방화의 현상은 4차원의 시·공간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4차원의 시공간론속에는 수 많은 단위체(정부, 기업,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S_1$ ,  $S_2$ ,  $S_3$  ... 등이 놓여져 있다. 그런데 이들 단위체  $S$ 는  $(x, y, z, t)$ 라는 변수로 좌표화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변수  $x, y$ 는 보편성 내지 일반성의 속성을 의미하며( $x$ 는 역사 및 당위적인 측면을,  $y$ 는 현실, 존재론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z$ 는  $S$ 의 특수성내지 개별성의 속성이다. 그리고  $t$ 는 시간의 동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단위체  $S_1$ ,  $S_2$ ,  $S_3$ 는 보편성인  $x, y$ 와 특수성인  $z$ , 그리고 시간의 동태성인  $t$ 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보편성  $x, y$ 중  $x$ (역사, 당위)만을 강조하게 되면 사회의 진보를 단일 직선적이며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보게되며 서구중심의 진화론적 입장에 서게 된다. 그리고 보편성  $y$ (현실)와  $t$ (시간)만을 강조하게 되면 몰가치론적인 입장에서 사회발전을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x, y$ 를 무시하고  $z$ 와  $t$ 만을 강조하게 되면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사회진보를 인식하게 되며, 지역주의, 국수주의, 배타주의적 관점을 지향하게 된다.

진정한 세계화는 사회구성원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삶의 질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단순히 서구화를 의미한다든지 또는 동일한 과정과 단계를 거쳐 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세계화의 의미는 보편성인  $x, y$ 와 특수성(지역성)인  $z$ , 그리고 시간의 동태성( $t$ )을 고려할 때 그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 세계화 · 지방화의 시 · 공간론적 인식<sup>1)</sup>

### 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방향과 교류의 모형

세계화 또는 국제화는 그 방향성에 따라 내향적 국제화(inward internationalization)와 외향적 국제화(outward internationalization)로 구분된다(김판석, 2000: 8). 내향적 국제화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과 관행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내의 제도, 규범 및 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과 우리의 제도, 규범 및 내부수용성(의식)을 국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확산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윤태범, 1995: 12). 반면에 외향적 국제화는 정부와 정부, 기업과 기업, 민간과 민간, 지방과 지방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의 주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적 측면에서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본 모형은 한국정치발전에 관한 한정일(1982)의 발전과 시 · 공간의 모형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임.

### 34 • 충남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

지방자치단체는 외향적·내향적 세계화(국제화)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선진 외국의 발달된 행정제도의 도입과 행정정보의 교환, 지역경제 및 산업의 발전, 지방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의 세계화 의식고취 및 국제예절의 배양 등을 도모하고 있다(권경득, 2001; 강형기, 1999).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사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지방행정의 세계화, ② 인적·문화교류의 활성화, ③ 경제·통상교류의 활성화, ④ 지역주민의식의 세계화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표 1> 참조).

<지방행정의 세계화>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기업과 외국기업의 경제·통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정시책, 행정규제의 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인적·문화교류의 활성화>는 자매도시간 공무원의 상호파견 또는 연수를 통한 선진 행정기술의 전수, 행정정보와 경험의 교환, 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 민간단체간 학술교류의 지원, 청소년·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경제·통상교류의 활성화>는 국제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상품을 개발·지원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활동, 경제·통상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실의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역주민의식의 세계화>는 지역주민의 자기정체성의 확립과 주인의식의 함양, 인류보편적인 가치관의 함양, 국제예절의 배양, 지역주민을 위한 국제이해 교육 및 외국어 강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행정의 세계화와 지역주민의식의 세계화는 내향적 국제화(세계화)의 범주에 속하며, 인적·문화교류의 활성화와 경제·통상교류의 활성화는 외향적 국제화(세계화)의 범주에 속한다.

&lt;표 1&gt;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세계화 추진방향

분 야	추진방향
지방행정의 세계화	· 국제관련 조직 및 인력의 강화 · 행정절차의 간소화 ·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 구축 · 정보안내 센터의 설치
인적·문화교류의 활성화	·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 지방공무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 문화·예술·체육·학술교류의 활성화 · 민간교류의 활성화
경제·통상교류의 활성화	·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의 개발 및 지원 · 해외시장의 개척 · 통상관련 정보의 제공 · 통상관련 상담실의 운영
지역주민의식의 세계화	· 주민정체성의 확립과 주민의식의 배양 · 국제예절의 배양 · 인류보편적인 가치관 함양 · 주민의 세계화 교육

자료 : 권경득(2001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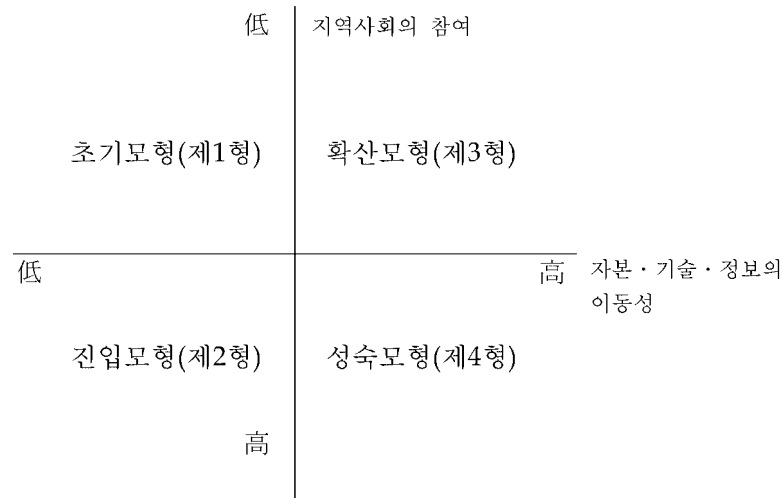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사람, 정보, 아이디어, 우수사례, 상품, 자본 등이 국경을 넘는 쌍방향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과 단발적 또는 지속적으로 인적·물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행정교류, 경제·통상교류, 문화·예술 교류, 체육 교류, 청소년 교류,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lt;표 2&gt;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유형

교류분야	교 류 내 용
· 행정교류	· 공무원 상호교환· 파견근무 · 공무원 연수· 시찰 및 조사단 교환
· 경제·통상교류	· 경제교류협정체결 · 지역기업진출 및 합작투자사업 · 전용공단조성 · 무역센터건립 · 산업시찰 · 상품전시관 및 특산물 상설전시관 개관 · 시장개척단 파견 · 상공회의소간 자매결연 · 중소기업 연합회 조직 · 투자설명회 · 관광전 개최 · 기술이전협의 · 직항로(여객) 개설
· 문화·예술교류	· 민속축제참가 · 합창단, 시립가무단 및 민속무용단 공연 · 사진전 개최 · 서적기증 · 바둑 및 서예교류전 · 국악연수 · 민속품 전시회
· 체육교류	· 스포츠교류단 파견 · 친선 스포츠경기 · 프로팀 친선경기
· 청소년교류	· 유학생 교류· 장학금 지급 · 친선방문(홈 스테이)
· 기 타	· 상호 공원조성 · 한국 정자건립 · 거리 명명식 · 자매도시 전시관 개관 · 명예박사학위 수여 · 위난시 원조(성금) · 동물교환(동물원) · 의료봉사활동(초청진료, 무료진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과정은 ① 자본, 기술, 정보의 이동성과 ② 지역사회의 참여라는 2개의 차원을 중심으로 4개의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2> 참조). <제1모형>은 초기모형(初期模型)으로 자본, 기술, 정보의 이동성이 낮으며 지역사회의 참여도 낮은 모형이다. 초기모형에서는 국제수준의 자본, 기술, 정보의 지역내 진출입이 거의 없으며, 세계화와 관련하여 지역단위 수준의 참여나 제도화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세계화와 관련된 효과 역시 주로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제2모형>은 진입모형으로 국제수준의 자본, 기술, 정보 등의 지역내외로의 진출입이 어느 정도 있으며, 세계화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에 대한 제도화 과정에 민간부분이 폭넓게 관여하는 모형이다. 진입모형에서는 지방의 세계화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상당 수준 이해하고 있으며, 세계화가 지방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제3모형>은 확산모형(擴散模型)으로 세계화 추진과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보다는 국제수준의 자본, 기술, 정보의 지역내외로의 진출입에 상대적인 관심을 두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자본, 기술, 정보의 지역내외로의 진출입이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제4모형>은 성숙모형(成熟模型)으로 세계화에 대한 지역단위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국제수준의 자본, 기술, 정보 등이 지역내외로 자유롭게 진출입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개별국가의 국민이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인류보편적인 가치관을 함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림 2> 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과정 분석 모형2)

####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지방정부와의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000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158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16개, 기초: 142개)가 외국 40개 국가 39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국가별 자매결연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10개 도시(광역시: 16개, 기초: 94개)로 제일 많으며 미국이 74개 도시(광역시: 23개, 기초: 51개), 일본이 70개 도시(광역시: 13개, 기초: 57개), 러시아 14개 도시(광역시: 9개, 기초 5개), 호주와 대만이 각각 10개 도시(각각 광역: 4개, 기초: 6개)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매결연의 현황 <표 4>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자치단체가 6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부산지역의 자치단체 24개 도시, 대구지역의 자치단체 10개 도시, 인천지역의 자치단체가 12개 도시, 광주지역의 자치단체가 7개 도시, 대전지역의 자치단체가 11개 도시, 울산지역의 자치단체가 5개 도시, 경기지역의 자치단체가 64개 도시, 강원지역의 자치단체가 27개 도시, 충북지역의 자치단체가 11개 도시, 충남지역의

2) 정재욱(1999).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과정에 대한 분석모형과 평가. 「경남개발」, 39 : 89.

### 38 • 충남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

자치단체가 24개 도시, 전북지역의 자치단체가 19개 도시, 전남지역의 자치단체가 19개 도시, 경북지역의 자치단체가 32개 도시, 경남지역의 자치단체가 38개 도시, 제주지역의 자치단체가 1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건수가 총 128건으로 전체 380건의 약 33.6%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은 1960년대의 경우 미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에는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에는 일본, 미국, 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74건), 일본(70건)뿐만 아니라 중국(110건), 러시아(14건), 호주(10건) 등 기타 국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어 자매결연 대상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다.

<표 3> 지방자치단체별 자매결연 현황

(2000년 5월 기준)

(단위 : 개, %)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한 국	26	11	4	4	4	4	1	24
외 국	64(16.8)	24(6.3)	10(2.6)	12(3.2)	7(1.8)	11(2.9)	11(1.3)	64(16.8)
구 분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한 국	12	6	10	9	11	12	12	5
외 국	27(7.1)	11(2.9)	24(6.3)	19(5.0)	19(5.0)	32(8.4)	38(10.0)	13(3.4)

자료: 행정자치부(2001 : 242).

&lt;표 4&gt;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추진 현황

(2000.12월 현재)

구분 국가명	외국자매 도시수	단 체 구 분		
		소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합계	392	392	120	272
중국	110	110	16	94
미국	74	74	23	51
일본	70	70	13	57
러시아	14	14	9	5
호주	10	10	4	6
대만	10	10	4	6
베트남	9	9	5	4
멕시코	10	10	6	4
인도네시아	7	7	5	2
캐나다	7	7	3	4
브라질	5	5	3	2
필리핀	4	4	1	3
몽골	5	5	1	4
프랑스	4	4	2	2
뉴질랜드	3	3	1	2
독일	3	3	-	3
네덜란드	3	3	1	2
이탈리아	3	3	2	1
남아프리카	3	3	3	-
카자흐스탄	2	2	1	1
벨기에	2	2	-	2
영국	2	2	1	1
헝가리	2	2	2	-
폴란드	2	2	2	-
파라과이	2	2	1	1
칠레	2	2	1	1
스페인	3	3	2	1
터어키	2	2	1	1
이집트	2	2	2	-

※ 1개 도시 자매결연 도시(10)

- 광역시(4) : 스웨덴, 콜롬비아, 파나마,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 기초단체(6) : 덴마크, 오스트리아, 키르기즈, 파푸아뉴기니, 루마니아, 인도

자료 : 행정자치부(2001).

### III.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 사례

#### 1.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 사례

##### 1) 일본 북구주시(北九州市)의 세계화 전략

일본은 지방정부의 세계화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자치성(自治省)은 지역의 세계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세계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세계화의 중요한 주체로서 각각 개별적인 국제교류,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의 협력체인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는 각 지방의 세계화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화 사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 및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북구주시(北九州市)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기반의 구축과 함께 세계화 시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표 5> 참조). 북구주시(北九州市)는 자매도시와의 교류확대, 민간주도형의 국제기술연수 프로그램의 실시, 국제교류기반 및 교류거점 구축, 국제교류 및 외국인 서비스체제의 정비, 지역고유문화의 창조, 북구주시(北九州市) 경제의 국제화, 해외시장개척 및 수입촉진 등 다양한 세계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우동기, 1995: 7-17).

##### 2) 북미 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

북미 지방정부의 세계화 전략을 벤쿠버시, 시애틀시 및 롱비치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캐나다 벤쿠버시는 1980년대 이전에는 문화·교육중심의 자매도시교류에 중점을 두었으나 1980년대 이후 경제교류 중심의 자매도시 프로그램을 채택·운영하여 요코하마, 홍콩, LA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환태평양 지향적인 국제통상정책의 기조를 마련하고 있다.

&lt;표 5&gt; 일본 北九州市의 세계화 프로그램

구 분	주 요 추 진 사 업
· 자매도시와 교류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타고마(Tacoma)시와 자매결연(1959)을 시작으로 외국과의 자매 우호도시를 확대(1985년 인천시와 자매결연 체결)</li> <li>· 중국 大連市에 「재단법인 북구주국제교류협회 駐大連 경제문화 교류사무소」 개설 (1991)</li> </ul>
· 국제기술연수 프로그램의 실시 (민간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출연으로 「재단법인 북구주국제연수협회(KITA)」 설치(1980)</li> <li>· 국제산업환경협력센터와 「국제 프런트 메인テナンス 센터」 설치(1992)</li> <li>· 국제협력단(JICA)북구주센터」 설치(1988)</li> <li>· 북구주시청의 기술연수 프로그램(항만국, 경제국, 기획국 등)</li> <li>· 국제환경계획 「글로벌 500」 수상</li> </ul>
· 국제교류기반 및 교류거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딩 프로젝트(Leading-Project)」 (1986): 국제도시 정비대상도시 지정</li> <li>· 국제컨벤션지구 개발(약 15만평): 북구주국제회의장과 「북구주 패스포트 센터」 설 치(1990)</li> <li>· 국제교류지구 개발(약 10만평): 「북구주 국제센터유치」 (1988)</li> <li>· 재단법인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ICSEAD)」 설립(1988)</li> <li>· 아시아 여성연구 교류포럼」 설립(1990)</li> <li>· 21세기를 대비한 항만 구축-북구주항만계획(1991)</li> </ul>
· 국제교류 및 외국인 서비스 체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법인 북구주교류협회」 설치(1990): 국제교류활동의추진 및 정보제공</li> <li>· 북구주국제교류단체 네트워크(KINET)」 결성(1988): 58개 단체가입</li> <li>· 재단법인 북구주컨벤션뷰로우」 설치(1990)</li> <li>· 어학지도를 위한 외국청년유치사업(JET) 실시(1987)</li> <li>· 외국인이 살기 편리한 도시가꾸기 캠페인</li> <li>· 외국 유학생 유치</li> </ul>
· 지역고유문화의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주국제음악제(1988)</li> <li>· 국제철강조각심포지엄(1987)</li> <li>· 현대미술여름세미나(1988)</li> <li>· -외국 예술가초청 이벤트 개최</li> <li>· K플랜(Kitakyusyu City Event Plaining) 수립(1990)</li> </ul>
· 북구주시 경제의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화의 추진을 6대 상공업진흥시책중의 하나로 채택하여 산업 및 유통의 국제적 거점도시로 발전</li> <li>· 국제종합유통센터」와 「북구주국제환경협력센터」 설치(1988)</li> <li>· 북구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북구주해외진출정보 협의회」를 설립하여 중소기업해외진출 모델지원사업추진</li> </ul>
· 해외시장개척 및 수입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주경제교류방문단-중국 각 도시</li> <li>· 북구주경제 · 기술교류방한단 -한국의 각 도시</li> <li>· 식품을 테마로한 西日本 국제견본시(1980) 개최</li> </ul>

자료: 우동기, (1995). 세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 pp. 7-17. 재작성.

1987년에는 <전략적 자매도시 정책>을 수립하여 벤쿠버 경제개발국을 중으로 환태평양(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실질적인 경제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벤쿠버-요코하마간 전략도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sup>3)</sup> 1990년대 이후에는 문화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제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세계평화와 군비감축, 해외원조, 세계 생태계 보호 등 기존의 중앙정부 기관들이 행하였던 외교문제까지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시애틀시는 1986년 시정부내에 국제국(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을 신설하여 종래의 문화와 교육기능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국제산업 및 무역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1990년에는 Goodwill Games와 NAFTA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92년에는 시애틀 무역개발협력체(TDAOGS)를 설립하여 각국 무역대표단에게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동반자와 자매도시 프로그램을 체결하여 시애틀을 북미 최고의 국제 무역관문 및 상업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있다. 시애틀은 「사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1993년에 APEC 정상회의 개최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매년 국제 소프트웨어 엑스포인 Global Soft Expo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롱비치시는 「새로운 경제」라는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과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항구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항구의 운영을 완전 독립하여 롱비치항(Port of Long Beach)을 미국 최고의 컨테이너항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국제교역량의 증가와 지속적인 증가를 위하여 「시(市) 수출개발국」을 설립하였으며 LA 세계무역연합(WTCA)의 국제무역 지원국의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정보체계를 확립하였다. 롱비치시는 지역산업과 상업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용도 지구제(Zoning)의 혜택, 비즈니스 창업, 융자 프로그램,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우서, 1997: 64-70).

3) 우동기, (1995). 세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 pp.7-17. 제작성.

&lt;표 6&gt; 북미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의 사례

도시명	전 략	추진사업내용
벤쿠버시	전략적 자매도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 이전에는 문화·교육중심의 자매도시교류의 증진</li> <li>•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교류중심의 자매도시 프로그램 채택하여 요코하마, 홍콩, LA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환태평양지향적인 국제통상정책 기조를 마련</li> <li>• 1987년 전략적 자매도시정책을 채택하여 벤쿠버 경제개발국을 중심으로 환태평양(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전략 도시프로그램 진행(벤쿠버-요코하마 교류)</li> <li>• 1990년대 이후에는 문화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제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li> <li>• 특히 세계평화와 군비감축, 해외원조, 세계 생태계보호 등 기존의 중앙정부 기관들이 행하였던 외교문제까지도 도시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li> </ul>
시애틀시	사업하기 좋은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6년 시정부내에 국제국(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을 신설하여 종래의 문화·교육기능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국제산업·무역기능 중심으로 전환</li> <li>• 1990년 Goodwill Games와 NAFTA회의 개최</li> <li>• 1992년 시애틀 무역개발협력체(TDAOGS)를 설립하여 각국 무역대표단에게 무역관련정보 제공 및 무역동반자와 자매도시 프로그램을 체결하여 시애틀을 북미 최고의 국제 무역관문 및 상업중심지로 성장</li> <li>• 1993년 APEC정상회의 개최</li> <li>• 1996년부터 국제 소프트웨어 엑스포인 GlobalSoft Expo개최</li> </ul>
롱비치시	새로운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과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항구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임(항구의 운영을 완전 독립).</li> <li>• 롱비치항(Port of Long Beach)을 미국 최고의 컨테이너항으로 성장시킴.</li> <li>• 국제교역량의 증가와 지속적인 증가를 위하여 시 수출개발국을 설립. LA세계무역연합(WTCA)의 국제무역의 지원국 정보들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체계확립</li> <li>• 지역산업과 상업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용도 지구제(Zoning)의 혜택, 비즈니스 창업, 융자프로그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li> </ul>

자료: 박우서, (1997).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사례. pp. 64-70. 재작성



## 2. 지방자치단체와 NGO, 지역국제화협회와의 연계 및 협동

### 사례 : 일본의 사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NGO 및 지역국제화협회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사례, 자금조성, 사업위탁, 해외협력, 페스티벌 및 세미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네트워크 · 파트너십의 사례

- 홋카이도 NGO 네트워크 협의회 — 1999년도 설립
  - 사무국 : (재)홋카이도 YMCA내
  - 구성원 : NGO, 국제교류단체 등 40개 단체
  - 목 적 : 많은 사람들에게 NGO활동을 알리고, 활동의 폭을 넓히는 것
  - 활 동 : 홋카이도 국제협력페스티벌 개최, 회원 상호의 정보교환에 의한 협력체제의 강화 등
- 아키타 국제교류 네트워크 — 1995년 설립
  - 사무국 : (재)아키타현 국제교류협회
  - 구성원 : NGO, 국제교류단체, 경제단체, 교육기관 등 개인회원 165명, 136개 단체
  - 목 적 : 현(縣) 내의 정보센터로서 단체·개인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서포트, 조정(coordinate)을 하는 것
  - 활 동 : 기관지에 의한 정보의 제공, 아키타 국제페스티벌 개최, 국제이해 강좌 개최, 「국제교류활동조성금」의 교부
- 후쿠시마 지구시민 네트워크 — 2001년도 설립
  - 사무국 : (재)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 구성원 : 현 내외의 NGO·국제교류단체 등 29개 단체(예전 단체를 포함)
  - 목 적 : 후쿠시마 미래 박람회(2001년)에 참가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국제화, 지구시민교육, 국제 NGO활동의 추진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
  - 활 동 : 페스티벌에의 참여, NGO Management 강좌 개최

○ NGO 이바라키 모임 — 1994년도 설립

- 사무국 : 오이스카 이바라키지국
- 구성원 : 현 내 NGO 12개 단체
- 목 적 : 상호활동의 연계를 도모하고 국제협력활동의 보급·계발 추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 활 동 : 현민에의 보급계발을 위한 공동 이벤트 등의 개최, 국제협력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 등, (재)이바라키 국제 교류협회와 공동으로 난민모금이나 국제협력활동의 실시

○ 아야노쿠니 사이타마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 2000년도 설립

- 사무국 : (재)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회·사이타마현
- 구성원 : NGO, 시정촌 국제교류협회, 전 시정촌(市町村) 198개 단체
- 목 적 : NGO와 행정이 하나가 된 지역개발, 「세계로 열린, 세계에 공헌하는 아야노쿠니 사이타마」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활 동 : 현내 외국인의 사회참여 지원, 외국적 아동·학생의 일본어 교육지원, 시정촌보육(保育) 기자재의 개발도상국에의 제공, 시정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

○ 야마나시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 1999년도 설립

- 사무국 : (재)야마나시현 국제교류협회
- 구성원 : NGO, 시정촌 국제교류협회 등 33개 단체
- 목 적 : 현 내의 국제교류·협력단체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정보교환과 공동사업 실시
- 활 동 : 국제페스티벌의 개최, 해외예술공연의 개최, 세미나 개최

○ 칸사이 국제교류 자원봉사 네트워크 회의 — 1996년도 설립

- 사무국 : (재)오사카부 국제교류재단
- 구성원 : NGO, 지역국제화협회, 시정촌 국제교류협회 등 80개 단체
- 목 적 : APEC 오사카회의(1995년)에서의 자원봉사자 활약을 계기로 칸사이 지구의 국제교류단체에 의해 자원봉사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
- 활 동 : 국제교류 자원봉사자의 연계, 상호지원·협력, 조사연구 등

## 46• 충남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

- 기타큐슈 국제교류단체 네트워크 — 1988년도 설립
  - 사무국 : (재)기타큐슈 국제교류협회
  - 구성원 : NGO, 국제교류단체 등 60개 단체(2002년 5월 1일 현재)
  - 목 적 : 필요한 정보의 발신, 유효한 노하우 제공에 의해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함
  - 활 동 : 뉴스레터의 발행, 핸드북의 작성, 이벤트 캘린더 작성
- 후쿠오카 국제관계단체연락회 「FUKU-NET」 — 1987년도 설립
  - 사무국 : (재)후쿠오카 국제교류협회
  - 구성원 : NGO, 국제교류단체 등 92개 단체
  - 목 적 : 후쿠오카시 및 주변지역의 국제관계단체의 연계강화와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국제화 추진에 기여한다.
  - 활 동 : 연락처(연 5회), 강연회, 활동발표회 등의 개최, 회원단체 명부의 작성

## 2) 자금조성

- 지역국제회협회(도도부현·정령시) 59개 단체 중, 45개 단체가 NGO에의 조성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조성액은 5만~50만엔 이내로 하고 있는 단체가 많지만, 100만엔 이내가 니이가타현, 카고시마현,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히로시마시, 한도액이 100만엔을 넘는 단체도 4개 단체(토쿄도, 카나가와현, 기후현, 삿포로시)가 있다.

## 3) 사업위탁

- (재)나고야 국제센터
  - 나고야 NGO센터에의 연수사업위탁
    - 내 용 : (재)나고야 국제센터의 「국제협력 NGO 스태프·자원봉사자 연수 ~ 기능향상코스~」사업(2001년도 CLAIR<일본자치체국제회협회> 선도적 시책지원사업에 의한 조성사업)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나

고야 NGO센터에 위탁했다.

○ 효고현 교육위원회

- 다언어센터 FACIL에의 다언어정보(학교생활가이드) 작성 위탁

- 내 용 : 효고현, (재)효고현 국제교류협회 및 한신지역 7개 시, 1개 정(町)으로 구성하는 「한신지역 다언어 생활정보 작성위원회」는 「NGO와의 협동에 의한 다언어 생활가이드 홈페이지(12개 언어, 약 100항목) 작성」 사업(2002년도 CLAIR 선구적 시책 지원사업에 의한 조성사업)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타카토리 커뮤니티센터」에 위탁했다.

#### 4) 해외협력

CLAIR 자치체국제협력촉진사업(모델사업) 중에서 주요 NGO 연계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도쿄도 기타구(北區)

- 동남아시아 보육지원사업

- 국제협력 대상지역 : 캄보디아 및 태국  
 - 사업년도 : 1996년~현재  
 - 연계NGO : 어린 난민을 생각하는 모임(CYR)  
 - 사업내용 : 구민이 주체가 되어 보육연수생의 영입, 보육사 현지파견에 의한 CYR보육소에서의 보육지도, 보육교재의 기증

○ 나가노현 나라가와촌(檜川村)

- 칠기공예을 통한 미얀마의 우호협력사업

- 국제협력 대상지역 : 미얀마  
 - 사업년도 : 1996년~현재  
 - 연계NGO : (재)오이스카  
 - 사업내용 : 칠기기술 전문가의 파견, 미얀마 기술자의 영입

○ 야마가타현

- 이리안 자야주 농업기술 등 보급지원사업

#### 48 • 충남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

- 국제협력 대상지역 : 인도네시아(이리안 자아주(현 파푸아주))
- 사업년도 : 1999년~현재
- 연계 NGO : 야마가타 이리안 자아 우호협회
- 사업내용 : 야마가타현의 우호 주(州)인 이리안 자아주(현 파푸아주)의 토양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 등의 보급촉진을 도모한다. 야마가타 이리안 자아우호협회에 의한 민간주체의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 ○ 시마네현 요코타정(横田町)

##### • 태국 주판 연수 · 보급사업, 제조기술이전 조사사업

- 국제협력 대상지역 : 태국(로이에트현, 얀손현)
- 사업년도 : 1994년~현재
- 연계 NGO : 일본 민제교류 센터(日本民際交流Center)
- 사업내용 : 1994년도부터 일본 민제교류 센터가 요코타정의 협력 · 지원 하에 행하고 있던 주판 보급사업을 1997년부터 정(町)이 주체가 되고 일본 민제교류 센터가 협력 ·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 중학교 교사의 초빙, 현지에서의 지도자 세미나 개최, 주판대사(중학생)에 의한 교류, 주판 제조기술이전 조사사업 등을 실시했다. 현재는 정민(町民)참가형 교류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주판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등도 계획 중

#### 5) 페스티벌 · 세미나

##### ○ 홋카이도 국제협력 페스타 2001

- 내 용 : 홋카이도 내 NGO단체 중심으로 국제협력활동을 어필. 세미나, 강연회, 민족의상 패션쇼, 바자회, 에스닉 카페 등
- 주 최 : 실행위원회(홋카이도, 삿포로시, JICA, (사)북방권센터, (재)삿포로 국제플라자, 홋카이도 내 NGO)

##### ○ 군마 국제교류축제

- 내 용 : NGO나 NPO 등과 협동하여 현민과 재주외국인, 유학생 등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도모한다.

- 주 최 : (재)군마현 국제교류협회
- 아야노쿠니 사이타마 국제페어
  - 내 용 : 현 내 NGO의 활동을 소개하는 부스 설치, 민족무용 등의 무대공연
  - 주 최 : 실행위원회(사이타마현, 사이타마현 국제교류협회, TV사이타마(주), (주)사이타마 아리나)
- 토치기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2002
  - 내 용 : 각국의 무용, 음악, 게임, 요리, 민예품
  - 주 최 : (재)도치기현 국제교류협회(공동개최 : JICA, 협력 : 현 내 NGO, 시정촌 국제교류협회 등)
- 니이가타 지구시민페스티벌
  - 내 용 : 많은 자원봉사자의 협력 하에 민족예능퍼포먼스, 현 내 NGO 등 활동소개 부스, 에스닉 요리 코너, 민족의상시착 코너 등에 의해 국제협력에 대한 현민의식의 계발을 도모하고 있다.
  - 주 최 : (재)니이가타현 국제교류협회
- 아스 페스타 카나가와
  - 내 용 : 심포지엄, 워크숍, 민족예능, 세계 포장마차촌 등에 의해 다문화 공생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주 최 : 실행위원회(요코하마 화교총회, 민단, 총련, NGO, JICA, 카나가와 현, (재)카나가 와현 국제교류협회)
- 요코하마 국제협력 축제
  - 내 용 : NGO활동을 소개하는 부스, 에스닉 포장마차촌, 세미나, 민족음악·무용 등에 의해 국제협력활동, NGO활동에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개최
  - 주 최 : 실행위원회(NGO 등으로 구성), (재)요코하마 국제교류협회
- 원 월드 페스티벌
  - 내 용 : 칸사이지구의 NGO, ODA, UN기관 등의 국제협력활동의 소개. 파넬디스커션, 워크숍, 민족요리 등
  - 주 최 : 실행위원회(칸사이의 NGO, JICA, (재)오사카YMCA, 국제협력은

## 50 • 충남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세미나

행, (재)오사카 국제교류센터, (재)오사카부 국제교류재단 등)

### ○ 지구시민휴일

- 내 용 : 국제협력활동, NGO에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NGO와 시민 및 NGO간의 정보교환·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NGO활동을 소개하는 무대·부스전시 및 세미나를 개최
- 주 최 : 실행위원회(NGO 등 31개 단체), (재)후쿠오카 국제교류협회

## IV. 충남 도정의 세계화 추진실태

### 1. 세계화 추진 조직 및 인력 현황

충청남도의 국제통상정책 관련조직 및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충청남도는 1994년 5월에 기획관실과 자치행정과 등에서 분산하여 담당하던 국제관련업무를 전담할 국제통상협력실(국제협력계와 국제통상계)을 신설하여 일반 국제교류업무와 통상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1996년에 국제통상협력실은 기획관리실 산하의 국제협력담당관실(국제교류계와 국제지원계)로 조직이 변경되었으며, 통상업무는 분리하여 중소기업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1997년에 국제협력관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제기획계, 교류 1계, 교류 2계로 확대되었다. 1998년 1월에는 국제기획계, 아주계, 미주계, 구주계 등 4계로 다시 확대되었다. 1998년 9월에는 경제통상국 산하의 국제통상과로 조직이 변경되었으며 국제기획담당, 통상협력담당, 아주담당, 미주담당, 구주담당 등 5담당으로 나누어 일반교류업무와 통상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였다. 1999년 9월이후에는 국제부서를 국제통상과로 일원화하였으며, 국제기획·국제교류·통상진흥·투자유치(외자유치)의 네 개 분야로 나누어 일반교류업무를 축소하고 투자와 외자 유치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각 분야의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기획분야>는 과(課) 소관업무의 종합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며, 도민 국제화수준 향상 및 공무원 국제화 능력개발, 국제화 관련 민간조직 육성 및 협력,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명예국제협력위원 운영, 그리고 국제업무에 대한 관련기관 및 실과·시군과의 협조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국제교류분야>는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을 통한 외국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재외교민과의 협력, 도·시군 국제교류 추진 지원, 해외사무소 지원 및 운영 등의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상진흥분야>는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의 통상 지원 등을 비롯한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군의 통상업무 및 서울 통상지원사무소와 해외사무소의 무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유치분야>는 외국기업 및 외자 및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및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외자유치설명회 및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 간접자본시설이나 주요 대단위 사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치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외국기업관련 인수합병(M&A)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해외통상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해외 통상지원단은 국제통상과, 기업, 무역유관기관(뉴욕 등 해외사무소), 특수외국어 전문가(외국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충남지역 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충청남도 국제통상과의 분야별·직급별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분야별로는 국제기획 11명, 국제교류 5명, 통상진흥 5명, 투자유치 4명, 해외사무소 2명이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6명, 6급 8명, 7급 6명, 기능 2명, 전임계약직 5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02년 9월 현재 총 27명이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lt;표 7&gt; 충청남도 국제교류 관련 조직의 변천

연 도	전 담 부 서		인 력 (정원)	기 능
1994. 5	국제통상협력실(2계)	· 국제협력계 · 국제통상계	11명	일반교류 · 통상업무 종합처리
1996. 2	국제협력담당관실(2계)	· 국제교류계 · 국제지원계	13명	통상업무 중소기업과로 분리
1997. 2	국제협력관실(3계)	· 국제기획계 · 교류1계 · 교류2계	17명	일반교류업무담당
1998. 1	국제협력관실(4계)	· 국제기획계 · 아주계 · 미주계 · 구주계	17명	일반교류 업무 담당
1998. 9	국제통상과(5담당)	· 국제기획담당 · 통상협력담당 · 아주담당 · 미주담당 · 구주담당	26명	일반교류업무 · 통상업무 통합
1999. 9	국제통상과(5담당)	· 국제기획담당 · 국제교류담당 · 통상진흥담당 · 투자유치담당	30명	일반교류 업무 축소 · 투자 및 외자 유치 업무 통합 (뉴욕사무소, 구마모토사무소)

자료: 충청남도(2002). 내부자료.

&lt;표 8&gt;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인원 현황

(2002년 9월 현재)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	전 임 계 약 직					
								계	가호	나호	다호	라호	마호
계	27	1	6	8	6		2	5		2	1	1	1
국제기획	11	1	1	2	1		2	4		2	1	1	
국제교류	5		1	2	2								
통상진흥	5		1	2	1			1					1
투자유치	5		1	2	1								
해외사무소	2		1		1								

자료: 충청남도(2002). 내부자료.

## 2. 충남 도정의 세계화 추진실태

### 1) 자매결연 현황

2002년 현재 충청남도과 충청남도내 15개 시군중 10개 시군이 외국 27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충청남도과 15개 시군의 자매결연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9> 참조), 충청남도의 경우 6개국(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폴란드)의 6개의 주(州)·성(省)·현(縣)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천안시는 2개국(미국, 중국)의 2개시, 공

<표 9> 충청남도 자매결연현황

구 분	대 상 국 가		자매결연 체결일자	행 자 부 승인일자
	국가명 (주,성,현)	도 시 명		
계		27개		
충청남도	일 본	구마모토(熊本)縣	83. 1.22	83. 1. 8
	중 국	허베이(河北)省	94.10.19	94. 7 .5
	러시아	아무르(Amur)州	95. 6.15	95. 5.17
	호 주	남호주州	99.10.12	99.10.12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01. 5.28	01. 5.20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02. 4.26	02.4.12
천안시	미 국	Oregon Beaverton	89. 5. 1	89. 4. 6
	중 국	河北省 스좌장(石家莊)市	97. 8.26	96. 6.11
공주시	일 본	熊本縣 菊水町	79. 9.15	79. 8.18
		시가(滋賀)縣 모리야마(守山)市	91. 8. 5	91. 7.16
		야마구치(山口)縣 山口市	93. 2.23	-
	미국	Culhoun郡	92.11.14	92. 3. 4
보령시	중 국	上海市 청포구	99. 4.26	97.10.25
아산시	중 국	遼寧省 普蘭店市	97. 5.20	96. 6.11.
서산시	일 본	나라(奈良)縣 덴리(天理)市	91.11. 7	91. 3.11
	미 국	뉴저지주 클립턴시	99. 5.12	98. 5.14
	벨기에	Huy市	84.12. 7	84.11.16
	독 일	네하임 휴스턴시	68. 9.27	-
금산군	중 국	찌린(吉林)省 안투(安圖)縣	95. 3.28	95. 1.23
부여군 (부여읍)	일 본	나라(奈良)縣 아스카(明日香)村	72.11.28	72. 6. 8.
		후쿠오카(福岡縣) 太宰府市	78. 4.21	78. 3.16
		미야자키(宮崎)縣 남고(南郷)村	91. 9. 2	-
		滋賀縣 蒲生郡 히노(日野)町	90. 5.15	-
(은산면) (장암면)		滋賀縣 蒲生郡 蒲生町	92.11. 2	-
홍성군	중 국	山東省 沂水縣	02. 4.24	02.4.19
태안군	중 국	山東省 타이안(泰安)市	94. 4.23	
당진군	미 국	Washington州 Snohomish郡	89. 5.10	89. 2.22

주시는 2개국(일본, 미국)의 4개 시(군), 보령시는 1개국(중국)의 1개시, 아산시 1개국(중국)의 1개시, 서산시는 4개국(일본, 미국, 벨기에, 독일)의 4개시, 금산군은 1개국(중국)의 1개시, 부여군은 1개국(일본)의 4개 시정촌, 홍성군은 1개국(중국)의 1개현, 태안군은 1개국(중국)의 1개시, 당진군은 1개국(미국)의 1개군과 자매결연을 각각 체결하였다.

## 2) 공무원의 해외 연수

충청남도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국제적 안목과 자질을 갖춘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매년 공무원 국외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국외여행은 크게 단기연수·출장과 장기연수, 국외파견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표 10>과 <표 11> 참조). 공무원의 단기연수 및 출장은 각 분야에 대한 선진 외국의 행정제도 및 운영기법 습득, 교류업무추진 등을 위해 1999년도에는 64건 107명, 2001년도에는 122건 219명이 각각 해외여행을 하였다. 장기연수는 선진 행정기법의 습득, 자매결연 외국정부와의 친선강화 등을 목적으로 매년 2명이 일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상호파견), 국외파견으로서 해외사무소운영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에 각각 1명씩을 파견하였다(충청남도, 2002: 561).

<표 10> 공무원의 해외여행 현황 I

구 분		목 적 별			지 역 별			
년 도	총 계	견학	회의참가	시장개척	유럽주	미주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2001	219명	161	22	36	60	50	98	11
1999	107명	54	29	24	23	30	50	4

자료: 충청남도(2000, 2002). 「도정백서」.

&lt;표 11&gt; 공무원의 해외여행 현황 II

년 도	직 급 별					성 별		연수주관별	
	단체장	부단체장	4급이상	5급	6급이하	남	여	중앙부처	도(기타)
2001	2	2	38	39	138	202	17	53	140(26)
1999	2	1	19	28	57	102	5	15	92

자료: 충청남도(2000, 2002). 「도정백서」.

### 3) 명예국제협력위원 활동

충청남도는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다(多)국가간의 교류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외교포 및 국내외 국제업무관련 인사를 명예국제협력위원으로 위촉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명예국제협력위원은 도내 관광명소, 특산품 소개는 물론 도정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제반 협력과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알선 및 현지 정보 등을 수집 제공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명예국제협력위원의 위촉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명예국제협력위원 수첩을 제작 배포하였다. 2001년 12월 현재 명예국제협력위원은 17개국 81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표 12> 참조).

&lt;표 12&gt; 명예국제협력위원 국가별 위촉현황

년 도	합계	아주(9)				미주(40)					구주(8)					한국 (12)	오세니아 주(7)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덴마크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2001	81	6	1	1	1	32	5	5	1	1	1	1	4	1	1	13	5	2
1999	76	6	1	1	1	30	5	3	1	1	1	1	4	1	1	12	5	2

자료: 충청남도(2000, 2002). 「도정백서」.

#### 4) 민간단체 교류현황

충남지역내 민간단체의 국제교류현황을 살펴보면(<표 13> 참조), 천안지역이 77건, 공주지역이 11건, 보령지역이 5건, 아산지역 2건, 서산지역 10건, 논산지역 9건, 금산지역 6건, 연기지역 1건, 부여지역 9건, 서천지역 2건, 홍성지역 6건, 예산지역 1건, 태안지역 2건, 당진지역 8건으로 총 14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안지역이 77건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23건, 일본 33건, 미주 46건, 유럽 9건, 기타 지역 3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주 지역이 46건으로 전체 국제교류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3> 민간단체 국제교류 현황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계	149	77	11	5	2	10	9	6	1	9	2	-	6	1	2	8
중국	23	7	2	1	-	4	2	-	1	1	1	-	1	-	2	1
일본	33	13	6	1	-	1	2	-	-	8	1	-	-	1	-	-
미주	46	27	2	1	-	3	2	3	-	-	-	-	3	-	-	5
유럽	9	8	-	-	-	-	-	1	-	-	-	-	-	-	-	-
기타	38	22	1	2	2	2	3	2	-	-	-	-	2	-	-	2

#### 5) 외국인 투자현황

외국인 기업의 도내 투자현황을 살펴보면(<표 14> 참조), 천안지역 67개 기업, 아산지역 21개 기업, 공주지역 7개 기업, 보령지역 4개 기업, 서산지역 6개 기업, 논산지역 2개 기업, 금산지역 1개 기업, 연기지역 12개 기업, 부여지역 기업, 서천지역 2개 기업, 청양지역 2개 기업, 홍성지역 3개 기업, 예산지역 3개 기업, 태안지역 1개 기업, 당진지역 10개 기업으로 총 142개 외국인 기업이 충청남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천안지역에 외국인 투

자기업은 67개로 전체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산(21개 기업), 연기(12개 기업), 당진(10개 기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서북부지역인 천안(67개), 아산(21개), 당진(10개)에 전체 69.0%의 외국인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15> 참조), 일본 53개 기업, 미국 32개 기업, 유럽지역은 33개 기업(독일 8개 기업, 프랑스 7개 기업, 영국 6개 기업, 네덜란드 6개 기업, 기타 6개 기업), 중국 20개 기업, 기타 14개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53개 기업)과 미국(32개 기업)이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의 59.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4> 도내기업체별 외국인투자기업현황(142개 업체)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계
수	67	7	4	21	6	2	1	12	1	2	2	3	3	1	10	142

<표 15>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국가별 현황(142개 업체)

일본	미국	유 럽 지 역					중국	기타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기타		
53	32	8	7	6	6	6	10	14

## 6) 외국인 등록현황

충청남도내 외국인 등록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16> 참조), 미주지역이 673명, 유럽지역이 267명, 아시아 지역이 8,806명, 기타 1,339명으로 총 11,08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이 8,806명으로 전체 7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주지역의 경우 미국(548명), 캐나다(110명), 기타(15명)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지역의 경우에는 영국(37명), 프랑스(15명), 독일(15명), 기타(193명)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3,047명), 일본(1,413명), 기타(4,346명)로 나타

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3,047명), 일본(1,413명), 미국(548명), 캐나다(110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 충청남도내 외국인 등록현황

국 가 별		총등록 외국인수	0세~4세 이하	5세~7세 이하	8세~13세 이하	14세~16 세 이하	17세~19 세 이하	20세 이상
미 주	미 국	548	23	31	92	31	18	353
	캐나다	110	2	1	1			106
	기 타	15						15
	소 계	673	25	32	93	31	18	474
유 럽	영 국	37		1	1	2	1	32
	프랑스	15	2	2				11
	독 일	22						22
	기 타	193	1			1	1	190
	소 계	267	3	3	1	3	2	255
아시아	중 국	3,047	11	10	35	27	55	2,909
	일 본	1,413	6	19	38	7	75	1,268
	기 타	4,346	17	16	36	16	30	4,231
	소 계	8,806	34	45	109	50	160	8,408
기 타		1,339	1	3	5	1		1,329
총 계		11,085	63	83	208	85	180	10,506



## V. 충남도정 세계화 추진의 평가와 과제

### 1. 충남도정 세계화 추진의 평가

지방행정의 세계화 측면을 살펴볼 때, 충청남도 국제관련 부서의 편제와 인력의 배치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Task Force팀과 외국인 기업과 행정기관과의 채널역할을 하는 외투기업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기록을 D/B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인적교류의 경우, 충청남도는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이후 기관장의 상호방문, 공무원의 해외연수, 공무원의 상호파견근무, 의회대표단의 상호방문, 문화·예술행사의 개최, 체육·청소년 교류 등을 통하여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제·통상교류의 경우에도 충청남도는 지역문화의 소개와 지역상품에 대한 해외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상설시장을 설치하며 각종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통상활동도 이전과 달리 지역적으로 유럽, 북미 등 선진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중남미, 중동지역으로 경제·통상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매년 국제연합일을 기념하여 도내 외국인 유학생(대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에게 한국과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충청남도는 국제수준의 자본, 기술, 정보의 지역내외로의 진출입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일반 지역주민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확산모형(擴散模型)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도정의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도내 15개 시·군중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10개 시·군을 제외한 5개 시·군이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5개 시·군은 충청남도, 지역국회의원, 해외동포, 해외공관장,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각자의 지역적 특성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의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자매결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결연지역의 선정에 보다 신중하여야 하며,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도시에 대한 경제, 산업, 문화, 사회단체 등의 교류전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자매결연이 체결된 이후에도 상호간 관심의 부족과 소극적인 태도로 부진한 교류상태를 초래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교류대상 국가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충남지역의 경우 일본(10건)과 중국(7건)과의 자매결연이 전체의 27건의 약 6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매결연 대상지역의 편중현상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는 지리적 접근성과 선진국 위주의 결연 희망, 자매결연 지역의 선정시 지역규모나 상대도시의 외양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승우, 1999). 외국 도시간의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제외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 투자의 경우 충청남도는 전국 16개 시·도중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충남지역내에서는 천안과 아산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지역경제와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내 기타 지역에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 기업에 세제 및 금융혜택을 주어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비스의 개선 및 규제완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넷째, 세계화의 추진으로 충남지역의 외국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필요한 정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거주 외국인의 약 5.2%에 해당하는 19세이하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교육기관의 설치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 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천안지역 외국인 기업투자기업의 한 외국인 간부는 천안지역의 생활에서 애로사항의 하나로 지역내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의 미흡함을 지적한바 있다.

## 2. 충남 도정 세계화 추진의 주요 과제

### 1) 국제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방행정 각 분야에 대해 국제적인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국제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특별채용의 확대와 외국인의 특별채용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관련 전문가양성 교육훈련기관에 담당 공무원의 파견을 통하여 국제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국제감각, 국제상식 및 어학력을 겸비한 국제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수도 있다.

###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국제교류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간단체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사업(프로그램)의 개발과 민관협력사업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부록 표 1>

참조). 민관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민간단체와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부담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단위에 민관합작의 <지역국제화협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다양한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현(縣)은 민간단체(기업)와 함께 외국 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세계화 관련 추진계획과 전략의 수립

충남도의 효율적인 세계화의 추진을 위하여 충남도내 국제교류를 위한 제반 현황과 세계화 기반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단기·중장기 세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지역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제교류에 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교류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초로 단기·중장기 세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과 추진일정, 추진절차, 추진책임자, 소요예산 추정과 조달방법,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세계화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정기평가 실시

효율적인 세계화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단위의 국제교류 증진방향, 내실 있는 국제협력방안, 각종 정보의 교환,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 및 투자유치 증진방안, 통상정책, 중소기업육성방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학술교류 지원방안,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진흥정책의 개발, 기타 세계화 추진시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 및 정책현안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과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세계화 추진에 대한 평가분야, 항목 및 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세계화 사업을 일관

성 있게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예를 들면 자매결연이후의 교류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 5) 주민대상 세계화 교육 실시

세계화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전제로 전 인류, 지구촌 수준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지역주민'으로서의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고양시켜 주인의식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화 교육을 실시하여 인류보편적인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배양하며, 개방적 사고와 균형 있는 시야를 지닌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어 능력의 향상, 외국인에 대한 이해증진, 외국인에 대한 열린 마음, 친절한 태도 등 국제예절의 함양을 통하여 상호신뢰의 기반을 다지며 상대방을 서로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여야 한다.

## VI. 결 론

급격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세계화’라는 대명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의 세계화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에 의한 방법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계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충청남도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국제관련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국제교류협력사업과 통상교류활동을 지원하여 많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보다 체계적인 세계화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계화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국제교류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매결연, 통상교류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와 관리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강형기. (1999). 지방의 세계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편). 「지방의 국제화」, pp. 13-36.
- 권경득. (2000). 지방정부의 세계화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3: 1-28.
- 권경득 · 우무정. (2001). 지방자치단체 국제통상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공공행정연구」, 4(2): 87-115.
- 길병옥. (2002). 내향적 세계화 및 민간주도형 세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 6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 325-346.
- 김경동. (1994). 국제화와 지방화: 개념적 고찰. 한국사회학회편. 서울: 나남출판사.
- 김병준. (1995). 지방자치단체 세계화 과제. 『지방행정』. 1995년 1월호.
- . (1999).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 『국제교류』 25: 44-47.
- 김선기. (199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방향과 과제. 지방자치국제교류재단.
- 김판석. (200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발전방향. 「지방자치학회보」, 12(4): 5-31.
- 박우서. (1997).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사례. 『국제교류』, 17: 63-70.
- 안성호. (2001). 21세기 충청남도 지방외교정책의 발전방향. 「21C 동북아 그린파트너십 형성과 충남의 역할」. 충남: 충남발전연구원.
- 우동기. (1995). 세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연구과제보고서 (95-02).
- 윤태범. (1995). 『21세기 경기도의 세계화전략』.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5-11.
- 윤정식. (1995). 『세계화 국가전략』. 서울: 21세기 정책연구원.
- 이승우. (1999).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현황과 활성화 방안. 『국제교류』 27: 8-12.
- 이재창. (1997).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정책. 『국제교류』. 1997년 5/6월호.
-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1998). 『자매교류 사례 및 최근 자매결연 현황』.
-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1999). 자매결연사업추진지침. 『국제교류』 27: 21-28.

충청남도. (2000, 2002). 「도정백서」.

한정일. (1982). 「한국정치발전론」. 서울 : 전예원.

행정자치부. (2001).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현황(내부자료)」.

행정자치부. (1998).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IMD. (2000).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부록 1>

동북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예시

부문	교류 프로그램(예시)	비고
행정부문	· 환황해권 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 회의 · 환황해권 한·중·일 지방자치단체 차세대 지역리더 교류사업	관
산업경제부문	· 환황해권 경제교류센터 설립·운영 · 환황해권 국제포럼 개최 ·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사업	민관
지역개발부문	· 지역얼굴 가꾸기 국제교류 사업 · 환황해권 지방지(地方紙) 교류 심포지엄 개최	민관
사회생활부문	· 동북아 평화연대 사업 · 한·중·일 국제여성 포럼 개최	민관
보건복지부문	· 한·중·일 장애인 포럼 개최	민관
환경보존부문	· 동북아 철새회의 · 동북아 환경보존 교류사업 · 한·중·일 환경 포럼(일명 : 물과 숲의 국제포럼)	민관
교육·청소년부문	· 한·중·일 청소년(어린이) 국제회의 및 교류사업	민관
학술부문	· 동북아시아 학술문화센터 운영 · 지구인 양성 세미나 개최	민관
스포츠 부문	· 동북아 전통무술대회 개최 · 한·중·일 장애인 친선 스포츠 대회 · 환황해권 역전경주 대회	민관
문화·예술부문	· 한·중·일 청소년(어린이) 음악제 개최 · 환황해권 음악 페스티벌	민관